

우리의 건축사를 위하여!

근대건축사를 연재하며

Introduction to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교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말 속에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이 없는 한국건축사, 근대건축사 그리고 한옥과 같은 일상화된 건축용어 속에 개항 이후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지내왔고,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이 땅의 건축이야기에서 주인은 당연히 우리 건축일 터인데, 굳이 '건축사(建築史)'라는 교과목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국어'라고 하지 '한국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건축사'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건축사'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우리는 언

제부터 '한국건축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혹시 '한국건축사'가 일제강점 하에 일인들에 의해 정의되었던 '조선건축사'를 단순히 번역하는 오류의 결과가 아닐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건축은 '조선건축'으로 불렸다. 일인들에 의해... 이때 '조선건축'에 사용된 '조선'은 '국가 이름으로서의 조선'이 아닌 '지역 이름으로서의 조선'이었다. 일본은 식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이 땅의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건축을 '조선건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이 땅의 건축역사는 '조선건축사'라 불렸다.

이 땅의 건축이 '조선건축'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주 잠깐 '한국건축'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다. 이 땅의 건축을 처음 조사했던 동경대학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1902년 한반도 남부의 오

래된 건축물을 조사했고, 그 결과가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로 발행된 것이다. 이후 세키노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모아 1932년에 '조선미술사'를 저술했다. 1904년의 조사보고에서 세키노가 '한국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인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축을 조사한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에 작성된 저술에서 그는 '한국' 대신에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일본이 굳이 '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인들이 사용한 '조선'이라는 단어는 일본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의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된 지역 이름이었다.

세키노에 이어서 우리건축을 연구한 사람이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서 교수를 지냈던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다. 그는 1930년 일본건축학회지인 '건축잡지'에 조선건축사론(1930)을 게재한 바 있고, 이후 식민지 조선의 건축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이밖에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곤와지로(今和次郎)가 한반도의 살림집을 조사한 후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1924)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세키노와 후지시마 그리고 곤와지로의 연구조사활동과는 또 다른 축으로 건축 연구의 맥이 형성되었다. 1933년 8월 8일 제정된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건축문화재가 수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를 비롯하여 스키야마 신조(杉山信三), 요네다 미요치(米田美代治) 등 총독부 건축기사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수리되었다. 이 중에서 오가와와 많은 현장기록과 도면 그리고 사진을 남겼으며, 요네다는 '조선상대건축의 연구'(1944)를, 스키야마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고려말 조선초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1950)를 발표하였다.

우리 손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가 시작도 못하는 사이에 일인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일인들이 구축한 선행연구의 틀은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되는 우리 손에 의한 우리 건축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척하기 시작한 건축사의 앞에 국가 명을 접두어로 붙인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양식'이라 부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국건축사'라는 과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사의 대척점에 있는 건축사 과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사의 대척점에는 서양건축사와 (서양)근대건축사가 있다.

우리의 '건축' 앞에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카'와 '필카'라는 신조어를 비교해 보자. 디지털카메라가 발명되기 전까지 카메라는 당연히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였기에, 우리는 '필름카메라'를 '카메라'라고 불렀지 '필름카메라' 또는 '필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디지

털카메라가 발명된 초기만 하더라도 '카메라=필름카메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필름카메라와 구별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디카라 불렀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가 빠르게 카메라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필카'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다. 필카는 필름카메라의 약어인데, 어느 덧 카메라=디지털카메라로 인식되면서 필름카메라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필카라는 새 말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는 한옥과 양옥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우리가 전통 주택을 '한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옥'을 집의 표준으로 삼고 있고 소수자로 전락한 우리의 전통주택을 당대 집의 표준과 다른 특별한 주택으로 인식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건축사'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건축이 주인이 아닌 객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어느덧 우리 건축의 안방을 서양건축이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양건축을 몰아내고 우리의 전통건축을 중심에 앉히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 위치는 물론 주인 의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건축이 아니라 서양 건축이라는 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왜 우리의 건축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근대를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손에 의해 시작된 우리 건축 역사 연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춰져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건축을 중심에 놓고 상대화시킨 '조선의 건축'을 우리는 '한국의 건축'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1960년대에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과 '국립종합박물관 현상공모 논쟁'을 최초의 전통건축 논쟁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두 논쟁의 핵심에는 전통이 없었다. 전통으로 포장된 건축가의 창작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의 경우는 후배 건축사(建築士)들의 우리 옛 건축에 대한 물리적 계승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컸다. 특히 부도덕한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우리의 옛 건축이 남용되면서 전통건축 형태의 재현에 대한 건축사(建築士)들의 비판의식은 더욱 공고해졌다. 자연스럽게 우리 건축의 양식적 가치는 건축사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로 인해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건축양식의 자리를 대신했고, 건축에 관한 담론은 추상적으로 흐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한국건축사'는 온전하게 우리의 건축 역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나? 답은 '아니오'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건축사는 조선시대까지만을 다

루는 고건축역사였을 뿐이다. 개항 이후의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건축사=고건축사'라는 이상한 등식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등식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건축사=고건축'이라는 등식 속에는 우리의 근대건축을 담지 못하는 '한국건축사'는 근대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여 그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는 '근대건축'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산업화없이 식민지배와 함께 근대사회에 진입한 우리 근대의 속성 때문이다. 이 땅에서 근대건축은 일본에 의해서 이식된 외래건축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우리의 건축사 연구는 당연히 근대 이전의 건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대건축은 그 뿌리가 우리건축이 아닌 일본건축 또는 서양건축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 자신을 근대건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한편, 고건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본에 의해 휘철되고 평가 절하되었던 우리 건축을 구원하여 역사에서 제 위치를 찾게 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까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건축에 대한 편애는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이 땅의 건축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서구의 모더니즘 건축이 보릿고개 탈출 이후를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렸던 한국건축의 정체성에 찾기로 이어졌다. 8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많은 건축인들이 마치 성지를 순례하듯 전통건축을 답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우리건축의 나아갈 바를 전통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과도한 부담이 전통건축에 부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양식적으로 우리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근대건축이 설 자리는 없었다. 오히려 르 꼬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으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건축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에 윤일주 교수에 의해 '한국양식건축80년사'라는 근대건축 저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우리 손에 의한 첫 번째 건축역사 연구서(고건축 포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인들에 의한 선행연구가 없는 근대건축 분야에서 나온 성과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자의 부재는 선각자의 길을 더욱 외롭게 할 뿐이었다.

'한국건축사=고건축'이라면, 근대건축사는 당연히 서양의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근대건축을 업으로 하는 필자가 우리의 근대건축사를 가르치기 위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사가 범했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해야만 했다. 앞서 지적한 우리 건축사 과목 앞에 나라 이름을 앞세우는 우를 이미 알고 있는 필자였지만, 이미 서양의 근대건축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근대건축사'가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건축사를 가르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앞에는 또 다시 한국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야만 했다.

필자는 개항 이후의 우리 건축을 연구하고 있어, 개항 이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지만, 개항 이전의 건축을 연구하는 건축 역사학자와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이는 우리의 근대건축과 건축역사 연구의 시작이 개항 이후에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사는 개항 이후의 건축과 건축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건축인에 의해 건축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이 생산되는 과정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재료 그리고 기술에 관심이 많고, 생산된 건축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멸되어가는 가에 관심이 많다.

필자가 건축사 잡지를 통해 연재하고자 하는 글은 바로 이점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서 우리건축이 오늘과 같은 틀을 갖추게 된 지난 150여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글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내왔던 우리 건축의 지금 모습에 대해 한번 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엮어가고자 한다. ■

경기도 대학원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교수다.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대림산업(주)에서 근무했으며 1990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다. 동대학원에서 한국 근대건축을 공부하고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건축가 김정수 작품집' 등의 저서가 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와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도쿄모모코리아 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서울시와 경기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